

# ‘지구를 살린다’는 자부심으로

신용으로 마지막 아름다움을 지켜

“폐지 1톤이 30년생 나무 20그루에 상당... 수입에 의존하던 폐지를 자체수거체제를 통해 재생, 경제적 손실을 줄인다는 자부심으로”

## 왜 ‘폐지’가 주목받고 있는가

산림자원의 남벌에 따른 지구의 온난화 현상은 환경파괴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온난화 현상은 1세기에 걸쳐 약 1.5~3.5도의 상승이 일어나고 있으며, 그 원인은 이산화탄소, 메탄 등의 가스를 흡수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산림자원의 파괴에 있고, 산림채벌의 12%를 차지하는 목재펄프종이의 생산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

이는 우리의 생활에 직접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산림자원을 조금이나마 보존시키기 위한 작업이 세계적으로 확산돼 가고 있

는 추세다.

(주)세풍의 협력업체인 트윈스실업은, 바로 지구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으로 출발했다.

“작년에 저희 트윈스실업에서 거둬들인 폐지의 양은 9억9천만톤으로, 이는 난지도를 덮을 정도의 양입니다. 신문용지의 경우 우리나라 폐지값은 선진국보다 가격이 싸입니다. 93년도에 60달러 하던 것이 95년 6월 현재 370달러 거든요. 여지껏 수입에 의존하던 폐지도 이제 자체적으로 리사이클링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제지공업연합회의 자료에 의하면 1994년 우리나라의 폐지 회수량은 연 330여만톤으로 회수율이 50.5%에 달하고 있으며 수입폐지는 연 140여만톤을 합하여 폐지 이용비율이 약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세풍제지 사업부 무역담당 차장으로 퇴사하여 1992년 트윈스실업을 창립해 지금까지 선조들의 장인 정신을 본보기로 견디고 있다는 정명모 사장은 일본 이시가와현 임업 시험장을 수료했을 만큼 삼림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갖고 있다.

가뜩이나 험악한 사회인데 ‘신용’마저 잃어 버린다면 이 사회는 아름다움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는 것이 21명의 직원과 생활해 오면서 그



▲ 김포에 위치한 폐지수거 현장



▲ 서적류를 절단, 분쇄하는 기계 앞에서 과정을 설명하는 정명모 사장

가 터득한 삶의 논리이다. 정 사장은 “트윈스실업은 소비자들이 사용하고 버려지는 종이를 수거해와 재생공장에 납품하는 직종이므로 항상 고객에 대한 신뢰와 친절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둘째로 직원들의 ‘인화’인데, 폐지수거의 업종이 제조업이 아니고 유통업으로 설정되어 있어 인간관계에 초점을 두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 김포 폐지수거장을 찾아서

더위에도 불구하고 서울근교에서 버려진 종이를 수거해 현장으로 옮긴 다음 다시 재생공장으로 보내는 작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

700여평의 부지에 약 50톤이 하루 수거량으로 들어온다. 이것을 집계차로 운반차량에 실은 다음 (주)세풍과 같은 재생공장으로 옮겨진다. 옆에는 제단기가 설치되어 있어 서적류의 재활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절단을 하고 있다.

현장에서 관리를 해오며 땀을 흘리는 최홍규 상무이사는 다음과 같

이 고달픔을 피력했다.

“물론 힘든 작업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일반적 시각으로 보면 더럽고, 힘들고, 추한 것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입에 의존해 오던 폐지를 자체수거체제를 통해 재생한다는 것은 경제적 손실을 줄인다는 자부심과 전망에 밝은 편입니다”라며 “지난 한 해 약 9억달러를 순수하게 벌어들였습니다”라고 덧붙혔다.

서울 경기 지역에 100여개 업체가 트윈스실업처럼 리사이클링사업을 하고 있다. 이들이 모여 서울고지협의회도 만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홍규 이사는 자료를 제시하며 다음과 같이 밝혔다.

“정부의 정책은 이해가 안갑니다. 여기보시면 아시겠지만 1994년 1월부터 한국자원재생공사의 기능이 조정되었습니다.

종전에 수집위주의 기능에서 자원화 기술개발 및 폐자원의 비축 위주의 기능으로 바뀌었고, 공동주택, 공공장소 및 농촌지역의 분리배출품 1차 수집업무 담당에서 일체의 1차

수집을 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에서 1차수집, 집하, 선별장으로 운송 후 반드시 민간수집상에서 유가 판매(6개월 단위 단가 계약)하며, 민간수집상 취급 기피 품목에 한하여 무상수거를 하게 되었거든요. 그리고 경기불황시 민간인이 수집한 품목의 매입·비축 혹은 보관 창고용으로 유상임대(비축을 위한 매입 결정은 사업자 단체와 협의하여 환경처가 결정)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지금 어떠합니까? 오히려 경쟁업체로 되어 가고 있거든요. 수십억이나 되는 자금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으며, 활동하는 것이 과연 ‘공사’의 이미지에 맞는지 의심이 갑니다. 민간업체에서 하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 폐지 1톤, 30년생 나무 20그루

재생지는 신문, 잡지, 각종 사무용 등의 일반생활수거폐지(Post Consumer Waste Paper)를 용해하여 인쇄잉크를 빼내고 탈목펄프로 만든 것과 공장에서 제지 및 재단시 발생하는 수거폐지(Pre Consumer Waste Paper)를 합성하여 재생되는 종이로써 최근에는 탈목기술의 발달로 품질면에서도 천연펄프종이에 손색이 없을 정도로 생산되어 고급지류에까지 널리 활용되고 있다.

폐지 1톤이 30년생 나무 20그루에 상당한다는 사실과, 결코 재생지라 하더라도 우리 종이문화를 실추시키는 저질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새롭게 인식하며 김포의 자원재활용 현장을 다시 한번 되돌아 보았다. ☐